한나라 광주·전남 두자릿수 득표 안간힘

한나라당 정용화 광주시장 후보와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의 고군분투가 눈물겨울 정도다. 이들은 두자릿수 득표에 사활을 걸고 광주·전남 곳곳을 돌면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진다고 지역발전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대통령 측근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한다"며 전략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4시간 이상 잠을 자 본적이 없다는 김대식 후보는 최근 잠을 3시간으로 줄였다. 단 1분이라도 더 유권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에서다. 정용화 후보도 다른 후보보다 '1시간 먼저 시작해 1시간 늦게까지 선거 운동을 한다'는 신조로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두자릿 수 지지율이 돼야 하고 가능하면 20%를 넘어야 국비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며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한 자릿수 지지율로는 청와대나 정부에 가서는 부탁할 힘이 없다는 논리다.

김대식·정용화 후보 측은 "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나눠주면 지역발전을 앞당기게 된다" 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한나라당이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돼 있다. 김대식 후보 캠프 관계자는 "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며 15%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화 후보 측도 "최근 두 자리 숫자 지지율로 올라섰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지사 후보가 지난 22일 5일장이 열린 함평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로고송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민주당 박빙지역 찾아 '후보 지원' 총력전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가 무소속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이어서 막판 선거전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23일 강운태· 박준영 후보 측에 따르면 두 후보는 이번 주부터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을 찾아 지원 유세를 하기로 했다.

이는 두 후보 모두 최근 여론조사에서 6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 사실상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다 무소속 후보와 격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후보들로부터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후보는 우선 무소속 현역 단체장과 경합 중인 최영호 남구청장 후보와 김선옥 서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강화한다. 강 후보는 핵심 지지층이 밀집돼 있는 남구에서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최영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 후보의 손을 잡고 남구 구석구석 돌며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강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강 후보가 투입되면 민주당 후보의 우세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후보도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는 신안 등 전남 5~6개 시·군을 집중 방문, 지원 유세를 벌이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가 23일 신안군 지도읍에서 강성종(오른쪽 첫 번째) 신안군수 후보 등 같은 당 소속 후보들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무소속 '연대·단일화'로 바람몰이 '올인'

광주·전남 무소속 후보들의 무기는 연대와 단일화다. 민주당이 민심을 외면한 '줄 세우기' 공천으로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이 세를 형성해 민주당에 맞서고 있다. 나주와 진도 등 무소속 기초단체장 난립 시·군은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

광주에서는 무소속 전주언 서구청장 후보와 황일봉 남구청장 후보를 필두로 30여 명의 무소속 지방 후보들이 차량, 운동원 의상 등을 통일해 바람몰이에 나섰다. 서구 무소속 연대는 지난 20일 무소속 연대 출정식을 했고, 24일엔 남구 무소속 연대가 광주공원 광장에서 대규모 합동 유세를 한다. 이들은 호남 위기의 원인을 '민주당 독점'이라고 주장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북구 무소속 연대의 송태종 광주시의원 후보 등 7명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지역발전보다는 줄 세우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에서는 노관규 순천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신정훈 전 나주시장의 부인 주향득 후보, 이성웅 광양시장, 이 청 장성군수, 황주홍 강진군수 등이 무소속 연대를 선언했다. 순천· 광양에선 기초단체장·지방의원 후보들이 무소속의 깃발 아래 뭉쳐 파괴력이 더해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서구 무소속 연대 후보들이 지난 20일 5·18 기념 공원에서 고개 숙여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정용화, 양동시장 활성화 공로 감사패 받아

한나라당 정용화 광주시장 후보가 지난 22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양동시장 상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양동시장 상가연합회(회장 김영호)는 이날 오후 양동시장 토요 장터를 방문한 정 후보에게 양동시장이 전국 34개 시장과 경합해 국제 문화관광 명소로 선정되도록 하고, 시장활성화 자금 6억 원을 지원받는데 앞장서 준데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 후보는 "서민 경제를 대변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졌을 뿐인데 감사패까지 받게 돼 과분하다"면서 "양동시장을 비롯한 학동시장과 말바우시장 등 광주 지역 17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운태 "광주공항 소음피해 법적 지원 주력"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는 22일 "광주공항 인근 주민이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도록 하겠다"라고 공약했다.

강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공항 전투비행장 이전대책위와 광주·전남 녹색연합 등이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마련한 간담회에서 "전투기 등으로 인해 서구·광산구 등 광주지역 소음피해가 심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는 "광주시장에 당선되면 시에서 전반적인 소음피해 용역조사를 해 이 결과를 토대로 시 자문변호사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겠다"라며 "김해공항만 지난 3월 제정된 공항소음방지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해 광주도 관련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만채 "농산어촌 아이들 교육 여건 개선 최선"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23일 화순군 화순읍 시장에서 선거운동을 갖고 "농산어촌의 조건을 잘 활용하면 도시보다 뛰어난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자연과 교육환경의 조화를 통해 21세기 미래형 학교 교육과정을 결합하면 도시에서 어려운 최상의 학교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농산어촌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또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교육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지역민과 함께 농산어촌의 장점을 살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언 "재선거 헛소문은 민주당 자작극"

전주언 무소속 서구청장 후보는 23일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전주언이 당선되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전략공천으로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다급해진 민주당이 약세를 만회하기 위해 자작한 유언비어"라고 주장했다.

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서구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정책선거를 펼칠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는 6.2지방선거에서 엄중한 서구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박진표 기자 cki@kwangju.co.kr